

이주명 “내 연기 오글거려 했는데, 가족도 인정 뿌듯”

tvN 종방극 ‘스물다섯 스물하나’ 태양고 반장 ‘지승완’ 역
“처음 극본 받았을 때 ‘꼭 하고 싶다’ 생각... 욕심이 났다”

탤런트 이주명(29)은 tvN 종방극 ‘스물다섯 스물하나’로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다. 처음 극본을 받았을 때 ‘꼭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오디션도 욕심이 났다. “너무 잘 보고 싶어서 달달달 떨어뜨렸다”고 할 정도다. 데뷔 후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부담감은 잠시 뿐이었다. 태양고 반장 ‘지승완’으로 분해 존재감을 드러냈고, 신인답지 않은 연기력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가족들도 인정한 작품이라며 “이전에는 내 연기를 보고 오글거려 했는데 유일하게 같이 울고 웃어줘 뿌듯하다”고 했다.

“처음 기획안과 극본을 봤을 때 유서로 캐릭터를 설명해 신선했다. 정지현 PD님과 권도는 작가님이 오디션에서 ‘잘 할 수 있겠어요?’라고 물었을 때 1초도 고민 없이 ‘네, 잘 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했다. 작가님이 엄청 쿨한데 끝나고 ‘잘했다, 지승완’이라고 하더라. 말투가 딱 이렇다. 작가님이 얼마나 승완이를 아꼈는지 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해 부담감을 안고 잘 그려내고 싶었다. (격려해줬을 때) 뒤에서 눈물이 찼습니다.”

이 드라마는 1998년 시대에 꿈을 빼앗긴 청춘들의 방황과 성장을 그렸다. 전교 1등인 승완은 꼭 부러지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다. 후반부에서 폭력 교사를 고발하고 자퇴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주명은 “캐스팅됐을 때 PD님과 작가님이 얘기해주 대충 짐작했다. 후련했고 대만족한 장면”이라며 “실제로는 승완이와 40% 정도 비슷하다. 전교 1등도, 반장도 해본 적이 없지만 승완이처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편이다. 승완이는 자신이 하는 말, 행동에 확신이 있다. 연기하면서 통쾌했고 많이 배웠다”고 돌아봤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엄마(소희정)에게 자퇴 얘기를 꺼내는 신을 꼽았다. “그 신 고민을 엄청 많이 했다. 항상 단단하고 어른스러워 보이던 승완이가 처음으로 어린 아이, 학생처럼 보였다. 한 번도 드러내지 않은 마음을 꺼냈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누구나 느껴봤을 것”이라며 “서러움, 미안함 등 북받치는 감정을 찾으려고 애썼다. 촬영장에서 소희정 선배 눈을 마주쳤을 때 ‘극본 그만 보고 방금 느낀 눈빛, 감정을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선배가 리드를 잘 해주 더 뭉클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러브라인이 없어서 아쉽지는 않았을까. 절친인 ‘문지웅(최현욱) 혹은 태양고 방송부 선배 ‘백이진(남주혁)과 로맨스를 기대한 시청자도 많았다. “러브라인이 있는 연기를 해보고 싶었지만, 승완이는 없는 게 더 매력적인 것 같다. 승완이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 아닐까 싶다”며 “캐릭터로 봤을 때 이상형은 지용이가 가깝다. 티격태격하면서 코드가 맞는 사람이 좋다. 센스 있고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귀띔했다.

태양고 5인방의 호흡은 최고였다. 김태리(32)부터 남주혁(30), 그룹 ‘우주소녀’ 보나(27·김지연), 최현욱(20)까지 “거의 포라라서 재미있게 촬영했다”며 “방송에서도 친근함이 그대로 보여서 사랑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분위기 메이커는 김태리라며 “언니가 현장

에서 리드를 많이 했다. 지금은 ‘태리 언니’라고 편하게 얘기하지만, 첫 촬영 때 너무 떨렸다. 언젠가 꼭 같이 연기하고 싶었던 선배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혹시 언니도 이랬어?”라고 하니 “어떤 배우든 치열하게 준비하고 고민하면 떨리는 게 당연하다.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주 편하게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나희도(김태리)를 연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도 한 적이 있다. 내가 희도, 유림 중 누구와 닮았을까? 생각했다며 “유림이랑 더 비슷한 것 같다. 유림이는 많이 표현하지 않고, 혼자 짝지어려고 하는 모습이 강했다. 나도 연기를 하면서 조금 바뀌었지만, 유림과 비슷한 성향을 지녀 공감했다”고 털어놨다.

이주명에게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제2의 청춘’이다. “이 드라마를 하지 않았으면 한 번 밖에 겪어보지 못할 학창 시절을 다시 한번 경험했다. 난 나이가 조금 있어서 더 감사하고 더 행운이라고 생각했다”며 “태양고 4인방과 이진 선배 역시 나의 추억이 됐다. 때때로 나의 청춘, 옛날 향수가 그리울 때 다시 꺼내 보고 싶다. 나의 청춘은 이제 시작 아닐까. 바로 지금이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이주명은 대학에서 항공운항학을 전공해 승무원일을 꿈꿨다. 모델 일을 하다가 2016년 영국 4인조 밴드 ‘프렘’의 ‘후즈 갓 유 싱잉 어게인’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 2019년 드라마 ‘국민 여러분’을 시작으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1(2020) ‘미생: 그들이 있었다’(2020) ‘카이로스’(2020) 등에서 연기력을 쌓았다.

스물다섯 스물하나가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배 늘어 80만명을 넘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이주명의 일상 사진과 슬의생에서 ‘김준황’(정경호) 전



여자친구로 나온 ‘짬’(인터넷상에서 사진이나 그림 따위를 이르는 말) 등이 돌아다니고 있다. “정경호 전 여친이야? 같은 사람 맞아?”라고 해 놀랐다. 이번 드라마를 통해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떤 신이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연기자가 된 걸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이 드라마를 찍기 전 연기는 정답이 없는 데 ‘내가 잘하고 있나?’ ‘옳게 가고 있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 승완이를 통해 배운 게 ‘확신을 갖자’다. 이번에 많은 사랑을 받아서 조금 더 용기를 갖게 됐다. ‘조금 더 열심히, 즐겁게 하자’고 마음먹었다. 앞으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차갑고 시크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소탈하고 망가진 모습도 보여주고 싶다.”

신화 앤디, 9세 연하 이은주 아나운서와 결혼



그들 ‘신화’의 막내 앤디(이선호·41)와 이은주(32) 제주MBC 아나운서가 결혼날짜를 확정했다.

25일 앤디 소속사 티오피 미디어에 따르면,

오는 6월 비공개 진행

앤디와 이은주는 오는 6월12일 웨딩마치를 올린다.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티오피 미디어는 “앤디가 소중한 인연을 만나 평생을 함께 할 약속을 하게 됐다.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주시길 바란다. 앤디는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약 1년간 교제해왔다. 앤디는 지난 1월 결혼 소식을 알리며 이은주에 대해 “저에게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한 사람이 생겼다. 제가 힘든 순간에 저를 웃게 해주고 저를 많이 아껴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고은아·유정 “몸과 정신 건강한 다이어트 하고파”



배우 고은아와 그룹 브레이브걸스 유정이 KBS 2TV ‘빼고파’에 출연한 이유를 25일 밝혔다.

KBS 2TV ‘빼고파’ 오는 30일 첫방송

오는 30일 오후 10시 35분에 첫 방송되는 ‘빼고파’는 ‘배고픈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연예계 대표 유지어터 김신영과 다이어트에 지친 언니들이 함께하는 좌중우돌 건강한 몸만들기 프로젝트이다.

고은아는 출연에 대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왔다. 이제는 몸도 정신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고, 지금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알고 싶었다. 또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동지(멤버)들이 있다는 것이 크게 와닿아서 출연하고 싶었다. 운 좋게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기쁘고 즐겁다”고 밝혔다.

유정 역시 “직업이 직업인지라 일상에서 다

이어를 빼놓을 수 없었다. 사실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그렇다 보니 항상 고무줄 몸무게였다. 그래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했고 몸이 많이 상하기도 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었는데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구체적인 지식도 없었다. 빼고파를 통해 동기 부여도 되고, 또 좋은 사람들과 같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누구보다 체중에 민감한 삶을 살아왔고, 그만큼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빼고파’를 통해 많은 30대 여성들의 다이어트 고민을 대변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에 도전한다.

죄수와 검사 두 얼굴 가진 강하늘... ‘인사이드’

JTBC 새 수목드라마 ‘인사이드’ 측은 25일 배우 강하늘의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인사이드’는 잠입 수사 중 나락으로 떨어진 사법연수생 김요한(강하늘 분)이 빼앗긴 운명의 패를 거머쥐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액션 서스펜스다.

강하늘은 극 중 잠입 수사로 운명이 바뀐 수석 사법연수생 ‘김요한’으로 분한다. 비리 검사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 도박판에 잠입한 그는 뜻밖의 사건에 휘말리며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힌다.

세상을 버림받고 들어간 교도소에서 복수를 위한 서바이벌, 목숨을 내건 위험천만한 게임을 시작한다.

공개된 티저 포스터에는 김요한의 ‘극과 극’ 두 얼굴이 담겨있다. 죄수와 검사의 경계선에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김요한은 명민한 머리와 신중함, 어떤 위기에 도 부러지지 않는 강인함과 흔들림 없는 포커 페이스를 무기로 위험천만한 도박판에 뛰어들다. 이와 함께 ‘잊히지 마라, 듣기지 마라’라는 문구는 운명의 패를 빼앗긴 남자의 인생을 건 잠입을 궁극하게 만든다.

제작진은 “김요한이 용감하게 내디딘 곳은 정의가 아닌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가혹한



세상이다. 진의도, 정체도 숨긴 그가 펼칠 처절한 싸움이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기대해 달라. 김요한의 다이나믹한 서사를 밀도 있게 그려낸 강하늘의 진가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사이드’는 오는 6월 첫 방송된다.

새소년, 북미 10개도시 투어 성료...K-인디도 주목

이달 12일까지 약 2주간 북미 투어...5000여명 팬 만나

K-팝 아이돌 그룹뿐만 아니라 K-인디 밴드들의 북미 진출도 활발하다.

24일 음반 기획사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에 따르면 3인 밴드 ‘새소년’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2주간의 북미 투어 새소년 2022 라이브 인 노스 아메리카(SE SO NEON 2022 LIVE IN NORTH AMERICA)를 성료했다.

뉴욕 공연을 시작으로 워싱턴 DC, 보스턴, 시카고, 오를랜드,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등 미국 9개 도시와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해 5000여명의 팬을 만났다.

황소운(보컬·기타), 유수(드럼), 박현진(베이스)으로 구성된 새소년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음악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유튜브 뮤직이 아티스트 개발 프로그램 ‘2021 유튜브 파운드리(Foundry)’를 진행, 전 세계 14개 국가 27개 신진 아티스트를 뽑았는데 새소년이 한국 유일 아티스트로 새소년이 선정됐다.

새소년은 올해 해외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내달 영국 브라이튼에서 열리는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THE GREAT ESCAPE)’ 페스티벌과 같은 달 런던에서 열리는 ‘2022 케이-뮤직 쇼케이스(K-MUSIC SHOWCASE)’ 무대에도 오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밴드 ‘안녕바다’와 그룹사운드 ‘잔나비’는 오는 7월27일 한국문화원과 미국 뉴욕 대표 문화예술 공연장 링컨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K인디 뮤직 나이트’에 출연한다.

작년에 ‘포크록 대부’ 한대수가 링컨센터에서 공연을 한 적은 있지만, 뉴욕에 상주하는 솔로뮤지션이라 안녕바다와 잔나비가 링컨센터 한국밴드 첫 공연의 주인공들이 됐다.

2019년 10월 결성된 여성 록밴드 ‘롤링퀸츠’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인기가 많은 팀이다. 록의 지분이 지극히 적은 국내 대중음악계에서도 미니악한 장르인 ‘하드록’을 앞



세웠다. 이들의 인기 진원지는 해외다. 코로나19 시대에 대안으로 선택한 온라인 공연이 ‘대박’이 났다. 채팅창을 영어·스페인어·터키어·스페인어 등 매번 수많은 언어들이 가득 채운다. 지난 2월 발매한 미니앨범 ‘파이팅(Fighting)’은 월드 와이드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23위, 미국 록 앨범 차트에서 5위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이들에게 해외 공연 제안도 쏟아지고 있다.